



30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9 그랑프리 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출전선수들이 역주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임희남(25·광주시청·가운데)이 10초55로 우승을 차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꿈 이룬’ 박찬호 아쉬운 적시타 허용

美 진출 15년만에 월드시리즈 등판... 팀은 1-3 역전패

‘코리아특급’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미국프로야구 진출 15년 만에 ‘꿈의 무대’인 월드시리즈를 처음으로 밟았다.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소속으로 우승 반지를 끼었던 김병현(30·전 피츠버그)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를 경험했다.

박찬호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시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 2차전에 1-2로 뒤진 7회말 무사 1,3루의 위기에서 페드로 마르티네스에 이어 두번째 투수로 등판했다. 박찬호는 두 타자를 상대로 안타 하나를 맞으면서 점수를 내주고 삼진을 하나 잡아냈다.

실점 위기에서 박찬호는 흐르며 포사다에 게 시속 148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꽂아넣는 등 정면승부를 벌이며 볼 카운트 2-1로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바깥쪽에 던진 4구째 147km짜리 싱커를 포사다가 중전 안타로 연결하면서 1점을 내주었다.

박찬호는 다음 타자인 데릭 지터를 스리번트 삼진으로 슈아 내고서 스코트 아이어와 교체됐다. 총 7개의 공을 던졌으며 최고 구속은 시속 148km를 찍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1차전에서 패했던 양키스가 홈런 2방으로 필라델피아에 3-1 역전승을 거두며 1승1패로 균형을 맞췄다. /연합뉴스

U-17 축구 한국, 알제리와 무승부만 해도 16강

2차전 이에 패배 불구 불씨 여전

‘1승1무는 22년 만의 2009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에 마치 노선이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30일(한국시간) U-17 월드컵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에 1-2 역전패를 당했다.

만 16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한국은 1승1패를 기록해 2연승 행진으로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할 이탈리아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1승1패로 동률인 우루과이에 골득실(한국 +1, 우루과이 0)에서 앞서 있고 ‘약체’ 알제리는 2연패에 빠져 16강 진출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했다.

11월2일 알제리와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을 남겨둔 한국은 지지만 않는다면 2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한다. /연합뉴스

‘총알 탄 커플’ 임희남·김하나 우승 합창

〈광주시청〉 〈안동시청〉

‘총알 탄’ 단거리 커플 임희남(25·광주시청)과 김하나(24·안동시청)가 올해 마지막 육상대회인 2009 한국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남녀 100m에서 동반우승했다.

임희남은 30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55를 찍어 여호수아(성결대·10초67), 오경수(한국체대·10초75)를 따돌리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열린 여자 100m 결승에서는 나을 전 끝난 전국체전에서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김하나가 11초65라는 대회 신기록으로 정상을 밟았다.

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남녀 100m 금빛 데이트 남자 세단뛰기 김덕현·110m 허들 박태경도 1위

전국체전 200m와 400m 계주에서 23년 만에 한국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100m와 1,600m 계주에서 4관왕에 올랐던 김하나의 중반부터 독주를 거듭, 이선애(서남중·12초00)와 강다슬(덕계고·12초07) 등 동생들을 물리치고 1위로 끝냈다.

국내 육상경기 가운데 유일하게 상금을 내건 그랑프리대회는 올해가 2회째로 관심이 높은 남녀 21개 종목에 시즌 1~8위 선수를 초청, 우승자를 가린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각 종목 우승자에게 100만원,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을 준다. 대회 MVP는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관심을 모았던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한국기록(4m35) 보유자 임은지(21·연세구청)가 라이벌 최윤희(23·원광대)를 누르고 전국체전에서 패배를 설욕했다. 둘은 나란히 4m20을 세 번 모두 넘지 못했지만 4m10을 넘는 시기에서 임은지가 첫 번째, 최윤희가 세번째에 넘어 매달 색깔이 갈렸다.

남자 세단뛰기에서는 김덕현(24)이 15m79라는 다소 저조한 기록으로 무난히 우승했고 남자 110m 허들에서도 박태경(29·이상 광주시청)이 14초04로 단상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신지에 “올해의 선수 해볼까”

하나은행-코오롱챔피언십 1R 3위... 오초아는 45위

‘골프 지존’ 신지에(21·미래에셋)가 ‘안방’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올해의 선수 가능성을 부풀렸다.

신지에는 30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 6천36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총상금 170만달러)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만 5개를 뽑아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6언더파 66타로 공동 선두에 나선 안나 그르제이비안, 미건 프란셀라(이상 미국)에 이

어 공동 3위에 오른 신지에는 136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올해의 선수 부문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같은 조로 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이븐파 72타로 공동 45위에 처졌고 크리스티 커(미국)는 2언더파 70타로 공동 16위에서 첫날을 마쳤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 131점으로 2위인 오초아, 최저타수 부문에서 70.18타로 70.16타의 오초아에 이어 2위를 달리는 커와 동반 플레이한 신지에는 드라이브 샷 거리가 가장 작게 나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착실히 타수를 줄여 나갔다.

2번 홀(파4)에서 155m 정도 거리에서 23도 하이브리드로 날린 두번째 샷을 홀 7m에 붙여 첫 버디를 잡은 신지에는 이후 버디만 4개를 더 보태 경쟁 상대들을 압도했다. 신지에는 “샷이 전체적으로 잘 맞았고 보기 없는 플레이를 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면서 “내일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 오늘 점수를 줄여놓자고 생각했는데 목표대로 됐다”고 말했다.

오초아는 3번 홀(파3) 보기 이후 파 행진을 계속하다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버디로 체면을 세웠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환축

- ▲이승수(전 광주매일 제작국 부국장)·정옥임씨 장남 정현군 신희수(한국식품 대표)·정연임씨 장녀 주현양=31일(토) 낮 12시30분 금호웨딩 3층 아시야나홀.
- ▲고재욱(전 삼도초등학교교장)·양현숙(광주YWCA 사무총장)씨 장남 기혁(동부건설 법무팀)군 이계방·남승희씨 장녀 은혜(툼보이 MD)=31일(토) 낮 12시30분 조선웨딩컨벤션 1층(영민관)

무음

- ▲임호위(전 화순읍장)씨 별세 병력

(GS칼텍스 부장)·동락·중현(광주일보 총무부 차장)·철수씨 부친상=발인 11월1일(일) 상무병원 장례식장 특실. 062-600-7400.

▲양해구씨 별세 법식·관식·은화·은례 부친상=발인 11월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신모남씨 별세 문규분·용분·은자씨 모친상=발인 11월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박금환씨 별세 남수·민수·인수·문옥·정옥·귀옥씨 부친상=발인 11월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박봉금씨 별세 김판수(호남매일)·정순·정자·정애·선운·금순씨 모친상=발인 31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조차남씨 별세 김홍대·원대·창대·부자씨 모친상=발인 31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대한민국 종합리포트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0

RADIO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가톨릭방송

CBS

080-800-1031